

볼리비아 농업 현황 및 시사점 *

이 창 훈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석사졸업)

1.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수도, 라파즈(행정수도, 해발고도 3,660m)와 세계 최대의 소금사막으로 유명한 유우니(Uyuni) 소금사막은 볼리비아의 대표적인 명소이다. 볼리비아는 안데스 지역 최고의 문명지로서 15세기 중엽에서 16세기 초까지는 잉카제국의 영토이었으나 1535년부터는 에스파냐(스페인)의 지배를 받아 1825년 수크레(Sucre)가 이끄는 볼리바르(Bolívar) 군대에 의해 독립한 나라이다. 2009년 2월 볼리비아 공화국(Republic de Bolivia)에서 볼리비아 다민족국(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 볼리비아)으로 공식 국가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그 이유는 볼리비아에 거주하는 36개 민족의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공동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현재 볼리비아 정부는 36개 민족의 모든 토착어를 헌법 제5-1조에 공식어로 명시하였으며, 대부분의 볼리비아 국민들은 스페인어를 사용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토착어를 사용한다.

볼리비아는 지리적으로 남미대륙의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파라과이 북서쪽으로는 페루와 칠레 남쪽으로는 아르헨티나 그리고 북쪽으로는 브라질과 페루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볼리비아는 크게 산악 및 고원을 이루는 서부의 고지대와

* (chgod85@gmail.com).

동부의 저지대로 나눌 수 있다. 서부의 고지대는 안데스 산맥이 관통하고 있으며 안데스 고원지역의 평균 해발고도는 3,600m이며 연중 평균기온은 7℃에서 11℃ 사이이다. 연중 강수량은 300mm에서 600mm로 장마나 홍수가 거의 없고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은 기후를 보이고 있다. 서부지역은 안데스 산맥에서도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비교적 넓은 고원이 펼쳐져 있다. 볼리비아 동부는 비교적 저지대에 속하며 브라질과 가까워질수록 아마존 지역의 특성인 열대기후가 나타난다. 동부 저지대의 해발고도는 약 160m에서 500m사이이고 연평균 강수량은 1,100mm에서 1,900mm로 볼리비아에서 가장 습하며 연평균 기온 또한 가장 높은 23℃에 이른다.

볼리비아는 2006년 에보모랄레스(Evo Morales)정부 수립이후, 2014년 대통령 연임에 3회 성공하며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있으며,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남미국가 중 하나이다. 주요 수출품인 천연가스, 광물자원 등의 국제 원자재가격의 꾸준한 상승으로 인한 수출호조에 힘입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4~6%대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2013년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과 천연가스와 석유 등의 생산량 증대, 그리고 볼리비아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민간 소비 확대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준인 6.8%의 경제 성장률을 이루기도 하였다.

하지만 2011년 볼리비아는 전체 인구의 약 45%가 빈곤층에 속해 있으며 여전히 빈곤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에보모랄레스 정부 이후 끊임없는 빈곤감축정책에 힘입어 빈곤율이 2005년 60.6%에서 2008년 57.3%, 그리고 2011년 45%대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며 정부가 해결해 나아가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특히 볼리비아는 인종 및 지역별 소득불균형의 격차가 중남미 국가 중 아이티, 온두라스 다음으로 심각한 수준이며 이러한 빈곤층과 인종 및 지역별 소득불균형은 장기간의 정치·경제적인 소외 현상과 불평등이 구조화된 역사적 배경에 기인하고 있다.

1.1. 일반연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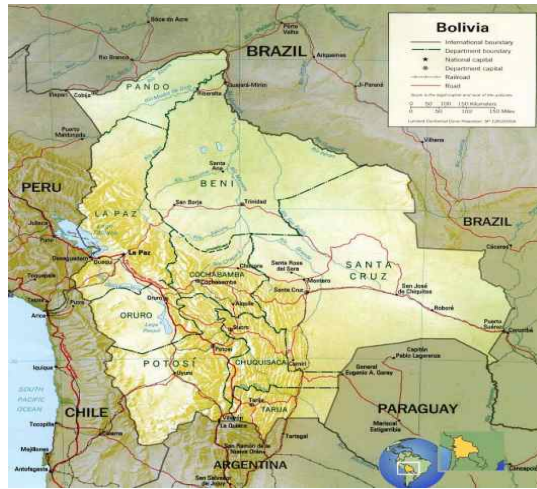
볼리비아의 국토면적은 약 109만 8,581km²로 한반도의 5배가 넘는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경 전체의 길이는 약 5,743km이다. 2015년 볼리비아의 전체 인구는 1,104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1960년 335만 명에 비해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인구 성장률 또한 2000년대 이전에는 2%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다가 2000년 이후로는 2%미만으로 하락하여 2015년 볼리비아 2015년 인구성장률은 약 1.69%로 예상하고 있다. 볼리비아 도심의 인구

는 전체인구의 약 67%정도를 차지하며 약 2.2%의 도시 인구성장률을 보이는 반면 농촌 및 지방의 인구성장률은 약 0.5%로 비교적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인구의 인종구성으로서는 약 40%가 백인과 인디오혼혈(메스티조)이고 아이마라종이 약 25%를 차지한다. 그 외에도 케추아가 약 20% 그리고 백인은 약 15%정도 차지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행정 수도인 라파즈(La Paz)는 해발고도 3,830m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자리 잡은 수도로 알려져 있다. 라파즈에는 15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6월부터 8월까지 평균기온은 7.5℃이고 12월부터 3월까지의 평균기온은 10.5℃이다. 볼리비아는 라파스 이외에도 오루로, 포토시, 타리하, 추키사카, 코차밤바, 산타크루즈, 베니, 판도의 9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볼리비아 전체 면적의 62%가 평지이며 그 외의 13%가 고산지대, 25%가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볼리비아 전체 토지면적의

34.21%는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 10.35%는 경작지로 사용되고 나머지 89.06%는 목초지와 영구작물(0.59%)로 사용되고 있다. 볼리비아 전체 토지면적에서 농경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1960년대에 비해 약 3% 이상 늘어났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농경지에서 경작지와 영구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목초지의 비율은 예전에 비해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목초지의 비율은 여전히 전체농경지의 거의 대부분(약 89.06%)을 차지하고 있어 목축업이 볼리비아 농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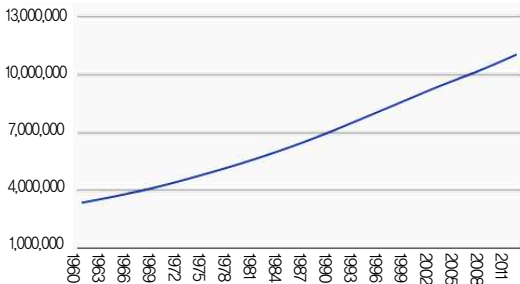
그림 1 볼리비아 지도



- 국 명 : 볼리비아 다민족국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
- 수 도 : 라파스(La Paz, 행정수도, 인구 150만명)
수크레(Sucre, 헌법수도, 인구 17만)
- 면 적 : 1,098,581km²
(한반도의 약5배, 국경길이: 6,743km)
- 인 구 : 1,104만 명 (2015년 추정치)
- 인 종 : 백인-인디오 혼혈(메스티조) 40%,
아이마라 25%, 케추아 20%, 백인 15%
- 언 어 : 스페인어(61%), 아이마라어(25%),
케추아어(20%), 등 총 37개 언어 공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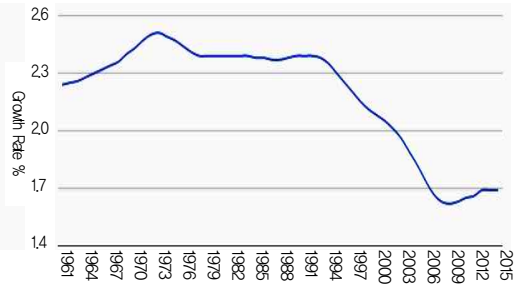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2015).

그림 2 볼리비아 인구(1960 ~ 2015)



자료: World Bank(2015).

그림 3 볼리비아 인구성장률 (1961 ~ 2015)



자료: World Bank(2015).

표 1 볼리비아 농경지 비율

품목/년도	단위: %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경작지	5.79	5.92	6.85	8.11	10.3	10.13	10.35
영구작물	0.35	0.44	0.45	0.45	0.54	0.59	0.59
목초지	93.86	93.64	92.7	91.44	89.16	89.27	89.06
농경지	30.98	32.73	33.69	34.15	34.12	34.12	34.21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5).

1.2. 볼리비아의 경제동향

볼리비아는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장을 개방했으나 1990년대 후반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볼리비아의 주요 수출품인 천연가스와 광물자원의 국제적 교역이 악화되어 2000년대 초반까지 2%대의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 심화로 안데안무역특혜법(ATPDEA) 혜택이 중단된데 이어 세계 금융 위기, 1차 상품 시세하락 및 해외근로자 송금 급감 등 대내외적인 악조건으로 인해 볼리비아 경제 성장률이 2008년 6.8%에서 2009년 3.4%대로 떨어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2006년 에보모랄레스 정부 수립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최대교역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높은 경제성장, 그리고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인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5%대의 비교적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정부지출의 확대 지속, 천연가스와 석유 생산량 증가, 그리고 소득수준 개선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에 의해 볼리비아 역대 최고 수준인 6.8%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표 2 볼리비아 경제지표

단위: 달러, 억 달러,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인당 PPP	3,920	4,180	4,400	4,710	4,790	4,940	5,200	5,410	5,750
GDP	9.55	11.45	13.12	16.67	17.33	19.65	23.95	27.04	30.60
GDP 연간성장률	4.42	4.8	4.56	6.15	3.36	4.13	5.17	5.18	6.78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5).

1.3. 볼리비아 수출입 현황

볼리비아의 무역수지는 수년간의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천연가스 수출 증가로 2008년에는 약 18억 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실현하였다. 특히 2003년 이후 안데스 무역 증진 및 마약퇴치법(ATPDEA)에 의한 관세 특혜에 힘입어 해외 수출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2008년 10월 미국의 마약퇴치법 관세특혜 대상국에서 제외되고, EU와의 FTA 협상교섭에 실패하여 대외 경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대체시장으로 거론되었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멕시코 시장도 경제 위기에 따른 자원수요 감소 및 이들 나라의 화폐 평가절하로 인하여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2010년부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주요 교역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기회복으로 2012년까지 약 30%대의 수출 신장세를 실현하였고 수입도 평균 25%의 꾸준한 증감률을 보이고 있다.

표 3 볼리비아 수·출입 및 무역수지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4	8,304	2.0	6,540	11.0	1,764
2013	12,208	3.3	9,352	8.9	2,856
2012	11,814	30.7	8,590	12.9	3,224
2011	9,040	30.0	7,611	41.1	1,429
2010	6,952	28.8	5,393	20.7	1,559
2009	5,399	-22.1	4,467	-12.4	932
2008	6,933	44.6	5,100	42.1	1,833
2007	4,795	17.3	3,588	22.6	1,207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5).

볼리비아의 주요수출 대상국으로는 브라질 약 32%, 미국 약 16%, 그리고 아르헨티나 약 15% 순이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석유가스 44%와 귀금속 스크랩 7.5%, 아연광 6.8%, 귀금속 광석 6.4%, 그리고 두 제품 4.6% 순으로 나타났다. 볼리비아의 주요 수입 대상국으로는 브라질 약 17%, 칠레 약 14%, 그리고 중국 약 12% 순이며 볼리비아의 주요 수입 품목은 석유 관련제품, 플라스틱, 제지 등이 있다.

표 4 볼리비아 수출국가

대륙	중남미					북미	아시아			유럽
국가명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스위스
비율(%)	31.83	14.94	4.1	3.1	2.4	15.78	3.94	2.99	2.96	2.47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5). 일부 국가만 발췌하여 저자 재작성

표 5 볼리비아 수입국가

대륙	중남미				북미		아시아		유럽	
국가명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미국	멕시코	중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비율(%)	17.20	13.77	9.77	4.76	10.17	2.98	11.72	4	1.93	1.91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5). 일부 국가만 발췌하여 저자 재작성

1.4. 안국과 볼리비아 교역 연왕

한국과 볼리비아는 1965년 국교수립이후 문화협정(1971년), 경제기술협력협정(1986년), 투자보장협정(1996년) 등 다양한 협정을 체결하여 무역증진에 힘쓰고 있다. 한국

표 6 한국 기준 볼리비아 연도별 교역 추이

단위: 천 달러, %

연도	교역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4년	429,119	25.70643	129,701	153.8	299,418	3.2
2013년	341,366	9.221742	51,106	34.6	290,260	5.7
2012년	312,544	-38.6092	37,960	42.5	274,584	-43.1
2011년	509,106	117.8982	26,636	34.6	482,470	125.6
2010년	233,644	194.5885	19,783	50.7	213,861	223.1
2009년	79,312	-63.5602	13,127	-13.1	66,185	-67.3
2008년	217,652	13.2401	15,112	48.3	202,540	11.3
2007년	192,204	13.52194	10,191	32.9	182,013	12.6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5).

과 볼리비아의 교역규모는 비교적 많지는 않으나 2009년과 2012년의 한국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수입 감소를 제외하고, 그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014년 우리나라와 볼리비아의 교역규모는 전년대비 25% 증가한 4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우리나라가 볼리비아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수송기계, 철강제품, 산업기계, 산업용 등 기계류가 약 65%를 차지하며 그 외에도 철강금속제품, 전자전기제품, 섬유류가 주로 수출되고 있다. 2014년 우리나라는 볼리비아로부터 총 2억 9,900만 달러를 수입하였으며 아연광, 금은 및 백금 등 여러 광물자원이 볼리비아 전체 수입의 약 95%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농수산물과 섬유제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

표 7 볼리비아 수출입 주요품목별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품목명	2013년				2014년 (12월)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총계	51,106	34.6	290,260	5.7	129,701	153.8	299,418	3.2
광산물	0	0.0	286,611	5.7	52	26,573.3	296,058	3.3
생활용품	396	-4.8	36	228.8	300	-24.2	21	-41.6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1,499	-64.4	1,001	235.4	1,860	24.1	123	-87.7
화학공업제품	1,719	-11.3	485	474.7	2,498	45.3	16	-96.7
섬유류	3,083	60.5	515	-13.7	2,842	-7.8	177	-65.7
농림수산물	1,125	-67.4	1,430	7.7	4,510	300.9	2,844	98.9
전자전기제품	3,991	38.6	2	-40.2	15,179	280.4	8	406.0
철강금속제품	5,362	851.9	180	-82.5	21,045	292.5	127	-29.7
기계류	33,277	51.9	0	-100.0	80,892	143.1	2	0.0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5).

1.5. 볼리비아의 산업연망

볼리비아는 광물 및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볼리비아는 전통적인 광물 개발 국가로 납(세계 9위), 주석(세계 4위), 아연(세계 10위), 은(세계 10위) 등 광물자원의 매장량이 풍부하다. 특히 준(準)광물로 구분되는 리튬의 경우 볼리비아 우유니(Uyuni)염호 지역에만 전 세계 매장량의 47.3%가 매장되어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볼리비아의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은 약 0.3조m³로서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5위에 해당하는 천연가스 자원 보유국이다. 볼리비아 정부는 이러한 풍부한 천연자원 및 광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

로 볼리비아의 천연가스 및 광물자원 발굴 및 생산에 필요한 신규 사업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어 생산량을 높이고 있다. 그 결과 천연가스 생산량이 2010년에는 142억 m^3 에서 2012년에는 183억 m^3 로 약 40억 m^3 이상의 천연가스를 더 많이 생산하였다. 2013년도 볼리비아에서 전년보다 25억 m^3 많은 총 208억 m^3 의 천연가스를 생산하였으며 볼리비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의 76.4%가 브라질(107억 m^3)과 아르헨티나(52억 m^3)로 수출되고 있다.

볼리비아는 남미 국가 중 파라과이와 함께 내륙에 위치한 국가로서 지정학적인 특성에 따라 국제교역의 95%가 철도와 육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철도 네트워크는 총 길이가 약 3,560km로서 중남미에서는 6위 그리고 세계에서는 46위 수준의 철도 네트워크 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도로 파손이나 낮은 도로포장률 등 도로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수송비가 다른 남미국가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리비아 정부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국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로 기반 개선을 주요목표로 설정하였으며, 2014년 국가 전체 예산의 약 30%를 교통 기반 구축에 투자하였다.

2. 볼리비아의 농업연망¹⁾

1980년대 후반 볼리비아의 주석 산업의 붕괴로 인해 농업의 역할이 볼리비아 경제 성장에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볼리비아의 농업생산은 국가의 경제 성장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볼리비아 농업 발전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산업이며 볼리비아 농업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볼리비아의 농업 여건을 농지 구조와 농촌 인구로 파악하고 농업 특징을 주요 농작물과 축산물로 나누어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볼리비아 농업 교역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1. 농업 여건

2.1.1 농지 구조

볼리비아 국토의 약 34%는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 약 10%는 경작지이고 나머지 90%는 목초지, 영구작물 및 관개농지로 사용되고 있다. 전체 토지에서 농경지

1) 볼리비아 농업은 U.S. library of congress에서 발표한 볼리비아 농업을 토대로 작성함. 농업 상품 관련 데이터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제공하는 FAOSTAT를 통해 나타냄

가 차지하는 비율을 1980년대에 비해 약 3%이상 늘었으며 농경지에서 경작지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 2011년 전체 농경지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목초지의 비율은 전체 농경지의 약 89%로 과거에 비해 점차 감소추세에 있지만 현재 까지도 목축업이 볼리비아 주요 농업으로 차지하고 있어 그 비중은 여전히 높다. 볼리비아 농업은 감자, 쌀, 옥수수, 밀 등의 전통적인 농업(25%)과 사탕수수, 면화, 대두, 설탕, 커피 등의 수출을 위한 상업농업(67%), 그리고 코카 생산(8%)로 분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상업 농업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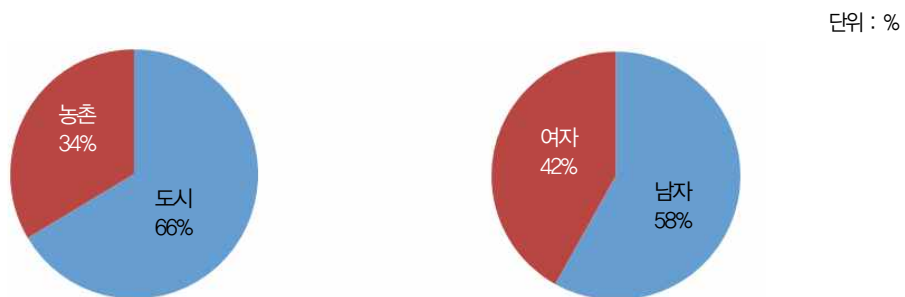
표 8 볼리비아 농경지 비율

품목/년도	단위 : %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경작지	5.79	5.92	6.85	8.11	10.3	10.13	10.35
영구작물	0.35	0.44	0.45	0.45	0.54	0.59	0.59
목초지	93.86	93.64	92.7	91.44	89.16	89.27	89.06
농경지	30.98	32.73	33.69	34.15	34.12	34.12	34.21

2.1.1 농지 인구

농촌 인구 수는 <그림 4>와 같이 2010년 기준 볼리비아 전체 인구인 1,104만 명 중 341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약 34%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지역 인구 가운데 남성 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전체 농촌 경제활동 인구 대비 58%로 여성 비율인 42%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그림 4 농촌 인구 및 경제활동 인구 비율 (201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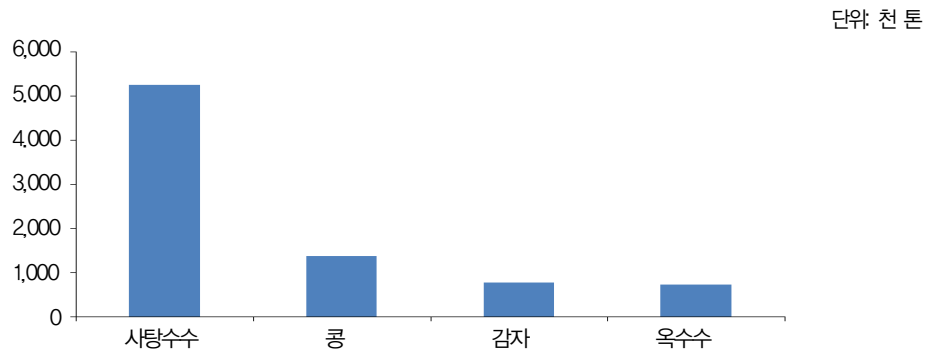


자료 : FAOSTAT(2014).

2.2 주요 농작물

볼리비아의 주요 농작물은 <그림 5>와 같이 사탕수수, 대두, 감자, 옥수수 순으로 재배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근 상업농업의 확대 추세에 따라 사탕수수와 대두의 생산량이 볼리비아 전체 농작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5 볼리비아 주요 농작물²⁾



자료 : FAOSTAT(2014).

볼리비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작물인 사탕수수는 산타크루즈 지역에서 대부분 생산되고 있으며, 볼리비아의 낮은 농업 기술 발달에도 불구하고 산타크루즈 지역의 약 3만 명의 농업종사자가 사탕수수 재배에 종사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는 작물이기도 하다.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사탕수수는 2000년에 360만 1,000톤에서 2013년에 806만 1,000톤을 생산하였으며 과거 2000년도에 비해 약 2배 이상의 생산량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대두는 볼리비아의 대표적인 상업농업의 현금작물로서 두 번째로 많이 생산되고 있다. 대두 재배의 약 30% 정도는 돼지의 사료를 목적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서유럽 및 인접국가인 페루와 브라질에 수출을 하고 있다. 볼리비아는 국제대두생산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oybean Producer)의 회원국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재까지도 볼리비아의 대표적인 현금작물로 꾸준히 재배되고 있다. 2000년도에 72만 1,000톤에서 2013년에 110만 8,000톤으로 대두의 생산량이 약 2배가량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 감자는 고대 잉카 문명전부터 볼리비아 고원지대의 인디언들에 의해 재배되어온 기초 작물이었으며 현재는 볼리비아에서 가장 중요한 식

2) 1993년부터 2013까지 연평균 생산량으로 나타내어 비교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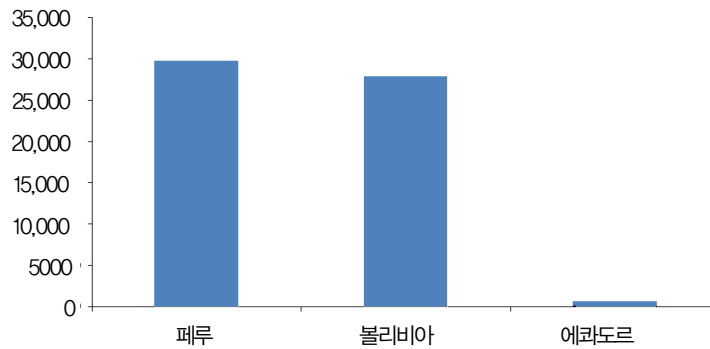
량 작물로 재배되고 있다. 2000년에 72만 1,000톤을 생산하였으며 2013년에 110만 8,000톤으로 약 38만 7,000톤가량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그 외의 볼리비아의 대표적인 농작물은 식량작물로서 쌀, 밀, 보리와 현금작물로는 퀴노아(Quinoa)를 들 수 있다. 쌀은 대부분 산타크루즈와 베티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생산량은 2000년에 29만 9,000톤에서 2013년에 42만 6,000톤으로 약 12만 톤 가까이 생산량이 증가했다. 밀의 생산량 또한 2000년에 10만 1,000톤을 생산하였으며, 2013년에 22만 3,000톤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보리는 맥주 원재료로 주로 생산되어지고 있으며, 2000년에는 6만 6,000톤에서 2013년에는 5만 1,000톤으로 그 생산량이 다소 줄어드는 추세이다.

퀴노아(Quinoa)는 볼리비아의 대표적인 현금작물로서 볼리비아 고산지대에서 꾸준히 소비되어졌다. 식물섬유도가 매우 높고 단백질이 풍부한 퀴노아는 다른 국가에서

그림 6 남아메리카의 퀴노아(Quinoa) 주요 생산국

단위 : 톤



자료 : FAOSTAT(2014).

표 9 주요 농작물 생산량

단위 천 톤

년도/품목	사탕수수	대두	감자	옥수수	쌀	밀	보리	퀴노아
2000	3,601	1,197	721	653	299	101	66	23
2005	5,112	1,693	761	738	479	131	73	25
2010	6,403	1,693	1,002	1,018	442	241	49	36
2011	6,794	1,861	1,032	918	428	182	50	40
2012	7,692	2,061	1,079	1,042	474	181	51	45
2013	8,065	2,347	1,108	1,063	426	223	51	50

자료 : FAOSTAT(2014).

도 건강식품으로 크게 각광 받고 있다. <그림 6>과 같이 퀴노아는 대부분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어 지고 있으며 볼리비아는 남미 대륙에서 두 번째로 퀴노아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다. 퀴노아 생산량은 과거 2000년도에 2만 3,000톤에서 2013년 5만 톤으로 약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2.2. 주요 축산물

먼저 볼리비아의 가축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이 나타난다. 주요 가축 수를 살펴보면 소는 1980년에 470만 8,000마리에서 2013년에 884만 7,000마리, 돼지는 1980년에 160만 마리에서 2013년에 286만 3,000마리로 각각 증가하였다. 닭의 경우 1980년에 1만 7,000마리에서 2013년 20만 마리로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소와 닭의 경우 아래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볼리비아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그 생산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닭의 수출 증가가 확연하다.

표 10 볼리비아 가축 변화 추이

품목/년도	단위 천 마리				
	1980	1990	2000	2010	2013
소	4,708	5,131	6,911	8,189	8,847
돼지	1,600	1,113	1,746	2,640	2,863
닭	17	23	77	195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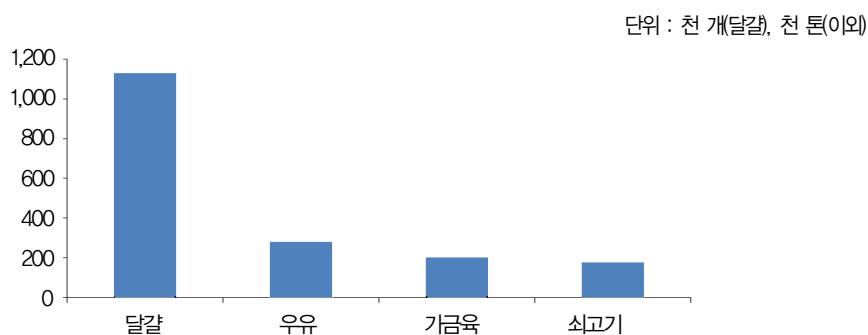
자료 : FACSTAT(2014).

볼리비아의 주요 축산물은 <그림 7>과 같이 달걀, 우유, 가금육, 쇠고기 순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낙농업분야에서는 달걀과 우유가 주로 생산되고 있으며, 가축업으로는 가금육과 쇠고기가 주로 생산되는 것이 특징이다.

볼리비아 축산물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먼저 볼리비아 낙농업을 살펴보면, 달걀은 2000년에 78만 개에서 2013년 141만 5,000개를 생산하였으며 우유는 2000년에 27만 1,000톤에서 59만 3,000톤으로 약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축업을 살펴보면, 가금육의 경우 2000년에 13만 4,000톤에서 2013년에 37만 9,000톤으로 생산량이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쇠고기의 경우에도 2000년에 15만 9,000톤에서 2013년에 21만 7,000톤, 돼지고기는 2000년 7만 6,422톤에서 2013년에 9만 599톤으로 생산량이 각각 증가하였다. 위의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닭 두수가 2009년 이후 크게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이에 따른

닭 수출도 2003년에 10톤에서 2011년 1,685톤으로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쇠고기 교역은 과거 수출량보다 수입량이 많았다가 2007년부터는 수출량이 수입량을 앞지르게 되었다. 돼지고기의 경우 최근 2010년부터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출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볼리비아 주요 축산물³⁾



자료 : FAOSTAT(2014).

표 11 주요 축산물 생산량

단위 : 천개(달걀), 톤(그 외)

년도/품목	달걀	우유	가금육	쇠고기	돼지고기
2000	780	271,685	134,373	159,794	76,422
2005	1,122	356,582	184,000	175,000	108,000
2010	1,398	475,851	383,095	202,347	83,881
2011	1,393	507,364	376,115	205,187	86,302
2012	1,404	562,380	376,315	215,125	89,385
2013	1,415	593,563	379,505	217,730	90,599

자료 : FAOSTAT(2014).

2.3. 볼리비아 농업 수출입 동향

2.3.1. 볼리비아 주요 농작물 교역

볼리비아의 농작물 중에서 대두와 옥수수는 매년 수출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농작물들이지만 두 작물의 수입 및 수출 규모는 그 해의 볼리비아 생산량에 따라 큰 변동성을 가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 외에도 볼리비아의 주요 수입 작물 중 하나인 감자는

3) 1993년부터 2013까지의 평균생산량을 비교한 것으로 달걀의 경우 개수로 나타낸 것이며 다른 축산물은 천 톤 단위로 나타냄

2003년 90톤에서 2011년 2만 434톤으로 수입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반대로 밀의 경우에는 2003년 34만 7,000톤에서 2011년 8만 277톤으로 수입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다.

표 12 주요 농작물 교역

단위 : 톤

구 분	수출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대두	수입	247,329	125,328	138,277	210,828	244,490	58,623	13,977	5,419	11,399
	수출	115,229	89,622	146,479	70,235	66,057	86,681	125,686	51,228	27,279
감자	수입	90	1,449	2,809	1,887	17,108	22,697	10,371	15,827	20,434
	수출	0	14	12	25	13	29	22	8	33
옥수수	수입	21,114	1,635	2,628	2,064	3,565	4,496	2,080	40,261	85,994
	수출	5,176	6,093	4,307	25,309	24,177	10,519	34,346	4,626	1,690
보리	수입	0	0	0	0	0	0	56	28	224
	수출	1	1	1	1	0	5	5	1	1
쌀	수입	2,321	2,896	3,356	1,497	13,290	43,648	16,108	2,317	5,656
	수출	0	5,066	1,056	8,210	5,691	54	0	3,290	2,088
밀	수입	347,513	234,489	209,096	130,820	110,007	88,861	61,267	39,313	80,277
	수출	0	1	0	0	0	0	0	0	0

자료 : FAOSTAT(2014).

2.3.2. 볼리비아 주요 축산물 교역

볼리비아의 축산물 교역은 다음 <표 13>과 같이 나타난다. 낙농업에서 달걀의 경우 2008년부터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반대로 우유의 경우 2010년까지 주로 수입에

표 13 주요 축산물 교역

단위 : 톤

품목/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달걀	수입	15	20	21	33	37	38	42	29	74
	수출	48	107	141	49	12	0	0	0	0
우유	수입	243	131	167	118	114	109	103	108	88
	수출	0	0	0	0	0	0	0	0	194
쇠고기	수입	434	348	611	512	230	92	40	23	313
	수출	35	118	120	247	351	367	252	295	698
닭	수입	0	2	4	2	5	14	2899	102	180
	수출	10	45	76	918	1071	829	1085	1919	1685
돼지	수입	2	0	0	0	0	0	0	112	117

자료 : FAOSTAT(2014).

의존하다가 2011년부터는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볼리비아 가축사업에서 닭은 주요 해외 수출품목이다.

2.4. 농촌 빈곤⁴⁾

볼리비아는 2006년 이후 4%대 이상의 꾸준한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인당 GDP는 2,868달러로 전 세계 189개 국가 중 130위권에 속하는 개발도상국이다. 특히, 볼리비아는 빈곤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2014년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볼리비아 인구의 약 45%가 가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볼리비아의 농촌 지역은 이보다 심각하여 약 61%에 이르는 농민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볼리비아 정부는 탄화수소 자원의 국유화와 연방정부 중심의 세수인상을 통해 빈곤퇴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에보 모랄레스 정부출범인 2006년도에 볼리비아 전체 빈곤율이 63%에 이르던 것이 2011년에는 45%로 약 18%p 이상 줄었다.

표 14 볼리비아 빈곤율

구 분	단위 %		
	전체	농촌지역	도심지역
2004	63.10	77.70	54.40
2005	60.59	77.60	51.05
2006	59.90	76.50	50.30
2007	60.10	77.30	50.90
2008	57.30	73.60	48.70
2009	51.30	66.40	43.30
2011	44.95	61.35	36.84

자료: World bank(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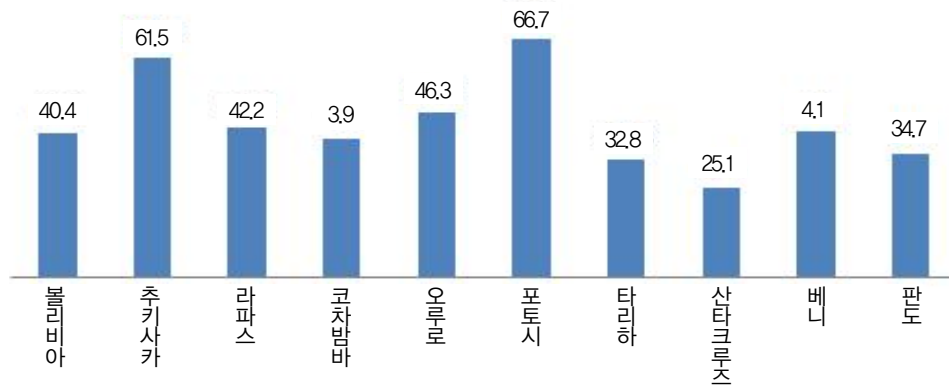
볼리비아 빈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볼리비아에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사회 불균형으로 인해 볼리비아의 다양한 인종과 지역별로 그 빈곤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 예로 국가의 소득 불균형을 수치로 나타내는 지니계수에서는 볼리비아가 0.59로 나타나 남미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사회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볼리비아 전체인구의 약 10%가 국가 총소득의 40%를 점유하고 있고 이와는 반대로 전체인구의

4)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에서 2013에 제공한 "Enabling poor rural people to overcome poverty in Bolivia,"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60%를 차지하는 원주민과 농촌 인구는 볼리비아 사회의 주요 빈곤계층으로 구분된다. 볼리비아는 백인과 인디오, 인디오와 메스티조 종족간의 갈등 외에도 서부지역의 백인(남미 북부출신)과 동부지역 백인(아르헨티나 출신)간의 갈등으로 인해 각각의 인종간의 빈부격차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볼리비아 내 지역 간에도 큰 폭의 빈부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림 8>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빈곤율이 가장 낮은 산타크루즈(25.1%)와 빈곤율이 가장 높은 포토시(66.7%)는 약 40%p의 차이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8 빈곤층 비율(2001)

단위: %



자료: UDAPE

2.4.1. 볼리비아 농촌 빈곤 개선 프로그램

볼리비아 농촌 빈곤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농업개발기금(The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에서는 볼리비아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의 주요 목적은 농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난한 농촌 농민들에게 전파하고 또한 천연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경영관리 및 발전을 위해 계획을 확립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볼리비아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지원받아 진행 중에 있다.

표 15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을 통한 볼리비아 농촌빈곤 개선 프로그램

볼리비아 가족과 농촌 사회를 위한 경제 프로그램 (ACCESOS)	
목적	지역 주민, 자주와 지역 정부 간의 긴밀한 관계 조성 강화 계획
지원	총 5,560만 달러 중 1,800만 달러 지원
지원 기간	5년
직접적인 혜택 가구 수	32,000 가구
극심한 빈곤(단계 1)을 근절하기 위한 프로그램(PEEP)	
목적	최저 소득을 갖은 농촌지역 빈곤계층을 줄이기 위한 계획
지원	총 1,530만 달러 중 8만 달러 지원
지원 기간	2011 ~ 2015년
직접적인 혜택 가구 수	18,000 가구
카멜리드(Camelid) 생산 농민 경제지원 사업 강화 프로젝트	
목적	농장주에 대한 자연보호와 지속적인 수입창출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제공 계획
지원	총 1,440만 달러 중 720만 달러 지원
지원 기간	2009 ~ 2015년
직접적인 혜택 가구 수	14,100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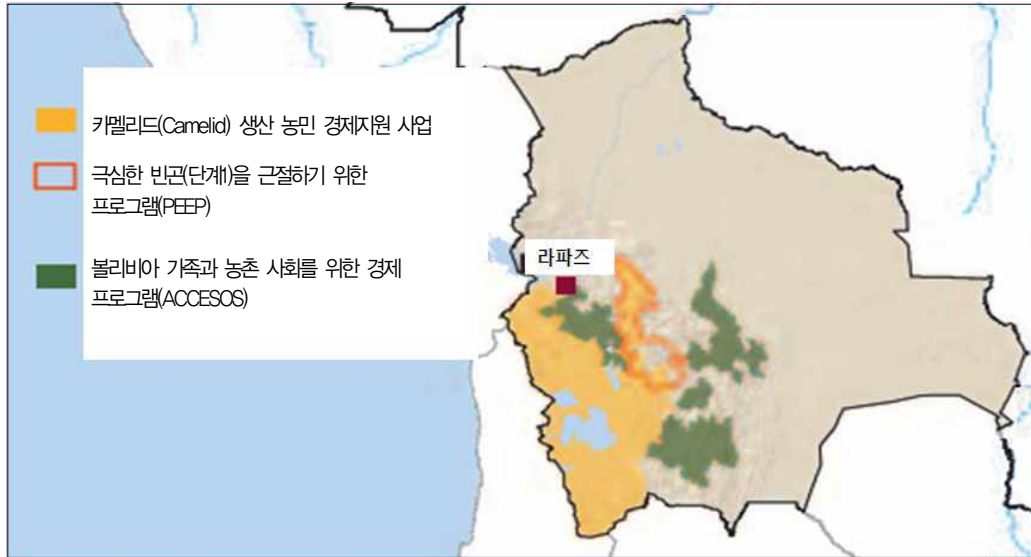
자료: IFAD.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볼리비아 농촌 빈곤 개선 프로그램은 볼리비아의 빈곤에 취약한 농촌지역에 집중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아래 지도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그림 9 참조>. 그리고 국제농업개발기금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국제 협력 기관에서도 볼리비아 농촌 빈곤에 관심을 가지고 빈곤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실시하고 있다.

3. 시사점

볼리비아는 풍부한 천연자원개발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루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남미 국가 중 빈곤의 정도가 심각한 나라이다. 특히 농촌의 빈곤은 전체 농촌인구의 절반 이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볼리비아 국민의 약 45%가 여전히 가난에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 가운데 30%이상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농촌 지역의 농업발전이 볼리비아 경제발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9 국제농업개발기금 지원 지역



자료: IFAD.

이에 따라 볼리비아 에보모랄레스 정부는 농촌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2006년 이후 꾸준히 수립하고 있다. 2009년 비비비엔(vivir bien to live well)이라는 구호아래 새로운 사회 조직과 경제 발전을 기초로 한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2009년에 제정된 새로운 법안에는 볼리비아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난한 농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볼리비아 경제발전을 함께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꾀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에는 농촌 지역의 식량 안보와 생계유지를 위한 발전 계획과 더불어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 및 경영관리의 내용이 주를 이루며 현재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볼리비아 정부의 노력은 2015년 현재 볼리비아 농촌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2012년 농촌지역의 성과평가에 따르면 볼리비아 정부의 여러 지원들이 볼리비아의 농촌 지역개발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와 농촌 조직 간의 유기적인 정책 수립과 더불어 농민들을 위한 교육투자, 그리고 농촌 지역의 비즈니스, 금융, 연구 및 기타 서비스 제공 및 농촌 발전을 위한 공공재화의 적절한 분배가 볼리비아 농촌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IFAD. 2013. *Enabling poor rural people to overcome poverty in Bolivia*. IFAD.
- IMF. 2001.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IMF.
- U.S library of congress. 2006. Bolivia. U.S library of congress.
- 관계부처합동. 2012.3. 볼리비아 국별협력전략 2012~2014. 제1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관계부처합동.
- 주볼리비아공화국대사관. 2010.8. 「볼리비아 개황」. 주볼리비아공화국대사관.

참고사이트

- 국제농업개발기금 (www.ifad.org)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www.faostat.fao.org)
- 세계은행 (www.worldbank.org)
- 주볼리비아대한미국대사관 (www.mofa.go.kr)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정보서비스 (www.global.korcham.net/Service)
- 볼리비아통계청 (www.bolivianland.net)